

축 사

(완도쌀 홍보 수출 기념식)

2023. 4. 17.(월) 11:00 / 완도군농협연합RPC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중희 의장입니다.

먼저, 작금의 농촌 현실의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올 가을에 기쁨의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완도쌀 홍보 수출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신우철 군수님,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 농협중앙회 김진수 지부장님,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노화농협 김중량 조합장님, 청산농협 이병호 조합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먼길 마다하지 않고 완도를 방문 해주신 농촌진흥청 고종민 과장님과 전남농업기술원 김도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쌀농사는 단순히 농사가 아니라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완도 쌀은 지역에서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관내 일부 가정이나 음식점 쌀독은 지금도 여전히 외부에서 들여 온 쌀로 채워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완도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농협, 농민들이 위기감을 갖고 더욱이 미질(米質) 향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민들이 '완도자연그대로미'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사랑해줄 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더욱 사랑받을 것입니다.

완도군의회도 농업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완도쌀 홍보 수출기념식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